


#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

## 8장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강대기



# 차례

- ◆ 맹목적 과학 숭배의 문제들
  - ◆ 우생학
  - ◆ 인종주의
  - ◆ 리센코주의
- ◆ 황우석 사태
- ◆ 참고 : 민족주의
- ◆ 생각해볼 문제들
- ◆ 참고문헌

# 우생학(優生學, Eugenics)

- ◆ 종의 개량을 목적으로 인간의 선발육종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 ◆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 ◆ 목적 -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
- ◆ 1883년 영국의 프랜시스 골턴이 처음으로 창시됨 (찰스 다윈의 사촌) - 당시 처음엔 기독교적이었던 영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참고: 본성 대 양육 논쟁 (nature v. nurture)
  - ◆ 인간은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상놈의 자손은 상놈?
  - ◆ 살인마의 자식은 살인마인가?
  - ◆ 한국 드라마의 출생의 비밀

# 우생학 태동의 배경과 우생학적인 사고

- ◆ 찰스 다윈의 진화론
  - ◆ 생존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이 생물 종의 진화를 결정한다
- ◆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 Social Darwinism)
  - ◆ 허버트 스펜서, 월터 배젓,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
  - ◆ 진화의 생존경쟁이 인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이 자연법칙의 순리라고 강조
  - ◆ 개인의 불평등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정치적 보수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합리화함
- ◆ 나쁜 놈(열성)들은 다 모아서 죽이면, 세상이 선해진다!
- ◆ 플라톤(Plato)의 『국가』(Politeia, 기원전 374년)
  - ◆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킨다
  - ◆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양육, 그렇지 못한 아이는 내다 버린다
  - ◆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 버려야 한다



# 우생학의 성장과 해악

- ◆ 20세기의 전반기(1900년~1950년) 우생학이 크게 성장했으나 결국 쇠퇴함
- ◆ 프랜시스 골턴
  - ◆ 초기에는 "몇 세대에 걸쳐 결혼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천재를 배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 ◆ 후기에는 "평균 이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자녀 수를 제한해야 한다"
- ◆ 서구의 각국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함
-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 ◆ 영국에서 국립 우생학 연구소가 생김
    - ◆ 우생교육학회 등의 우생학 단체가 생기고, 전문 학술지가 발간됨
  - ◆ 독일은 살마이어와 플로에츠가 주도
    - ◆ 전쟁 중으로 건강한 자는 전사하고, 허약한 자만 2세를 만든다고 간주함
    - ◆ 나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부적격자(불치병, 정신병, 백치, 정박아, 불구 아동)를 강제 거세하는 법 통과 - 후에 안락사까지 시킴
      - ◆ 장애인, 유태인 등 소수자를 무차별 학살함 - 홀로코스트
- ◆ 미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 ◆ 우생학이 법률로 제정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불임 수술과 거세를 당했으며 심지어 학살당함
  - ◆ 미국 우생학 기록국의 찰스 대번포트 - 정박아는 거세해야 한다 주장
  - ◆ 우생학에 따라 차별적인 이민법을 통과시킴
    - ◆ 미국 이민국의 헨리 고다드 - 이민 검사에 IQ 테스트 도입
- ◆ 환자나 범죄자들의 불임시술을 법률로 강제했던 나라와 연도
  - ◆ 미국(1909), 스위스·캐나다(1928), 덴마크(1929), 노르웨이 및 독일(1934)

# 과거의 우생학의 문제들

- ◆ 사회와 정책이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또 과학자들이 권력의 정치적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비극
- ◆ 우생학의 과학적 취약성, 홀로코스트, 대공황 등으로 우생학이 쇠퇴하기 시작함
- ◆ 우생학이 놓친 점들
  - ◆ 기나긴 진화의 시간과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궁극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나 열등한 유전자란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 쉽게 알아내기 힘들다. 하나의 형질이 수많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 본성 대 양육에서 환경 요인도 비슷하게 중요하기 보기 시작함 - 우생학은 유사 과학으로 치부되었으나, 환경만 중요하게 보는 것도 아님
    - ◆ 매트 리들리의 Nature via Nurture(본성과 양육), 통계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보다 집에 책이 많은 아이가 성공한다 (괴짜 경제학)
  - ◆ 진화는 궁극적인 최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자연이 선택하는 것 뿐임 (물고기의 눈과 인간의 눈, 기도와 식도)
  - ◆ 한 세대가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똑똑하길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나, 우생학은 그것이 관철되게 위해 강제적인 법, 물리적 구금, 강제 수술, 대중 선전, 특정 그룹의 희생, 정상과 비정상 간의 엄격한 구분 등을 통한 인권 침해가 있어왔음

# 현대의 우생학

- ◆ 집단적인 움직임에서 개인의 움직임으로
- ◆ 유전 상담(genetic counseling) 등장
  - ◆ 가끔은 역효과 - 특정 확률로 자신의 아이가 열성일 수 있다고 판명 → 더 많은 아이를 낳아 보상하려 함
  - ◆ 1950년대에는 식이요법 등으로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 1960년대, 고질적 유전 질환의 제거를 위한 우생학
  - ◆ 1960년대 말 미국 내에서 우생학에 대한 혐오가 급증함
    - ◆ 우생학이 사회 생물학으로 이름이 바뀜
- ◆ 1960년대, 태아 선별법 및 배아 선별법 등장
  - ◆ 태아 선별법 - 유전자 검사 후 문제가 있으면 낙태
  - ◆ 배아 선별법 - 체외 수정을 통해 여러 배아를 만들고 이 중 문제가 없는 것을 임신시킴 - 고비용
- ◆ 1962년 인간 유전자 조작의 가능성 논의되며 윤리적 논의도 많아짐
- ◆ 유전자 치료는 우생학인가?
  - ◆ 1979년 World Council of Churches 국제회의
    - ◆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용납됨
    - ◆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및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어떠한 유전자 조작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
  - ◆ 치료가 아닌 특질 강화의 목적을 가진 유전자 조작은 불평등의 심화를 유발함
    - ◆ 환경적 불평등(예, 강남 출신, 고액 과외)과 유전적 불평등(예, 똑똑한 머리, 유전자 조작)으로 유발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본성 대 양육 논쟁으로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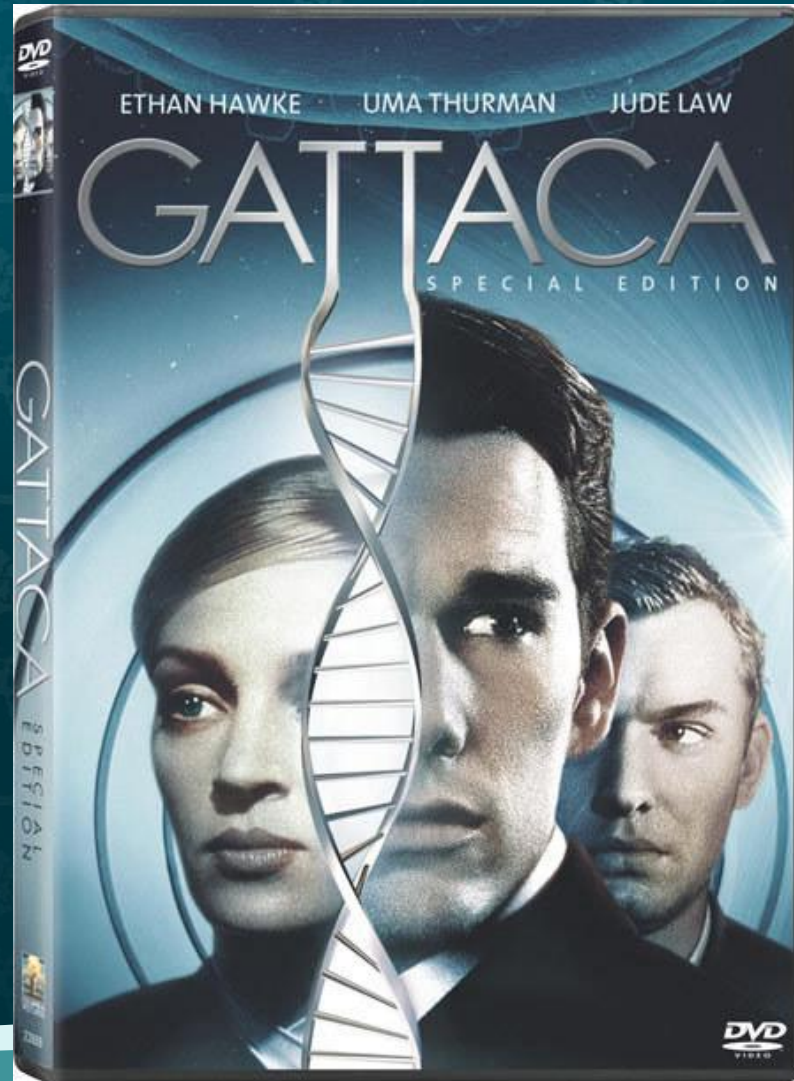


# 인간 게놈 프로젝트

- ◆ 사람의 몸
  - ◆ 약 60조개의 세포
  - ◆ 한 세포 - 44개의 상염색체와 2 개의 성염색체
  - ◆ 한 염색체 - 약 31 억개의 염기쌍이 있으나 이 중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기쌍은 2% 정도
  - ◆ 하나의 유전자는 약 1000 개 정도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염색체에는 2만6천~4만개의 유전자가 있음
-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 희생자들의 유전자 손상과 이로 인한 돌연변이 유발 → 노벨상 수상자 HJ 웰러 "생존자의 생식세포에 수십만 개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셈" 경고
- ◆ 일본과 미국 정부는 원폭이 인간 생체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 - 최근 인간의 유전자 지도 완료 후 각 유전자의 기능 규명에 들어감
- ◆ 헌팅턴씨병, 암,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 수많은 유전 관련 질병들의 원인 규명 기대
  - ◆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관련 불치병 진단 가능 (사형선고나 다름없음) - 예, 헌팅턴씨병
- ◆ 홈메이드 우생학을 통한 슈퍼베이비 출산 - 정부 주도가 아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인간 개량은 기정 사실" (참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
- ◆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소수의 다국적 기업 및 자본가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큼 - 서민 계층은 소외됨 - 빈자와 부자, 빈국과 부국의 불평등 심화
- ◆ 취업이나 보험에서의 차별 가능성 높음 - 유전자 검사 결과 당신은 열성이므로, 취업이 안 됨 또는 보험 가입 거절
- ◆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근거한 철학 - 결국 다시 본성 대 양육 논쟁
- ◆ 생물학적 결정론에만 의존하면,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약해짐 - 질병을 유발하는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
- ◆ 결함이 있는 아이는 낳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소극적인 우생학 효과
  - ◆ 참고 영화 - 가타카 (Gattaca, 1997, 미국)



# 가타카 (Gattaca)



# 인종주의

## ◆ 인종주의 문제

- ◆ 현재,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 ◆ 과거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로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며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념
- ◆ 북미와 호주의 원주민 거의 멸종
-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식민지 사람들의 착취
- ◆ 600만명의 유대인 학살
- ◆ 현재, 유럽 국민들의 비유럽계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증오

## ◆ 종의 분류 자체가 모호한 개념

- ◆ 유대인 - 종교적 집단,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됨
- ◆ 오늘날은 호르몬 활동 등으로 수십 개로 나눌 수 있으나 의미 없음
- ◆ 서로 다른 인종이라 불리는 경우도, 생식의 문제가 없음
- ◆ 진화론적인 해석으로는 인간은 분류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음 (적 아니면 동지, 좋은 놈 나쁜 놈, 등등)
  - ◆ 참고 - 인간은 얼굴을 잘 찾아냄(Pareidolia, 심령 사진)

## ◆ 인종주의자의 가정 - 백인 > 다른 인종



# 인종주의의 가정

- ◆ 첫째, 인간은 공통의 신체적 특질을 가진 다른 인간집단인 인종으로 나뉘는데 그들 사이의 차이는 동물의 다른 종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같다.
- ◆ 둘째, 신체적, 정신적 특질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유전에 의해 후대에 전달된다. 교육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 ◆ 셋째,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위는 대체로 그가 속한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의존한다.
- ◆ 넷째, 인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우열이 있다. 이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적, 도덕적 특질의 우열로 나타난다.
- ◆ 다섯째, 위의 전제의 의해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예속화, 절멸하는 것은 정당화 된다.



# 전근대 유럽 사회

- ◆ 고대 이집트 사회 - 인종적 편견 없었음
- ◆ 그리스인 - 자기 종족은 귀하고, 다른 종족은 야만인, 흑인의 지적 능력도 낮다고 여기지 않음
- ◆ 아리스토텔레스
  - ◆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노예인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후자에게 노예의 조건은 이익이 되고 정당하다.”
  - ◆ 자연적 노예에게는 폭력을 써도 되고, 후천적인 관습적 노예에게 폭력은 안됨
  - ◆ 피부색에는 관심 없었음
- ◆ 로마인들 - 노예는 있었으나, 인종주의 없었음
- ◆ 기독교 시대
  - ◆ 다른 문화나 종교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강함
  - ◆ 노예제에 관한 어느 것도 피부색이나 인종을 관련시키지 않음

# 중세 유럽사회

- ◆ 급속히 커지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싸움으로 이슬람 교도에 대한 악감정
- ◆ 십자군 전쟁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대량 학살
- ◆ 당시 이슬람권의 문화 수준이 월등히 높아서 인종주의적 차별은 불가능했으나, 유대인은 크게 박해함
  - ◆ 유대인에 대해서는 근대적 인종주의와 비슷한 박해함 - 종교적 인종주의
- ◆ 중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늘면서, 야만인이라는 개념이 생김 - 문화적 인종주의
- ◆ 15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하여 포르투갈에 노예로 팔기 시작함
- ◆ 16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인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남
  - ◆ 착취, 억압, 노예화의 이유 - 문화적 원시성, 종교적 요인 → 생물학전 인종주의 등장
- ◆ 스페인도 비슷한 논리로 중남미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
- ◆ 북아메리카 - 처음엔 원주민들을 고귀한 야만인으로 보고 청교도로 개종하려 함 → 토지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들의 이미지를 저열한 야만인으로 변화시킴
  - ◆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 “인디언이라 불리는 동물들은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
  - ◆ 아프리카 노예의 수입을 통한 노동력 확보로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더욱 발전함
  - ◆ 17세기 초부터 담배 플랜테이션의 발전으로 노예 농장이 북아메리카에 확대
  - ◆ 1690년대에는 노예제가 북아메리카에 확고히 자리잡음
  - ◆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을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노예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
  - ◆ 참고: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미국 인디언 멸망사”
  - ◆ 참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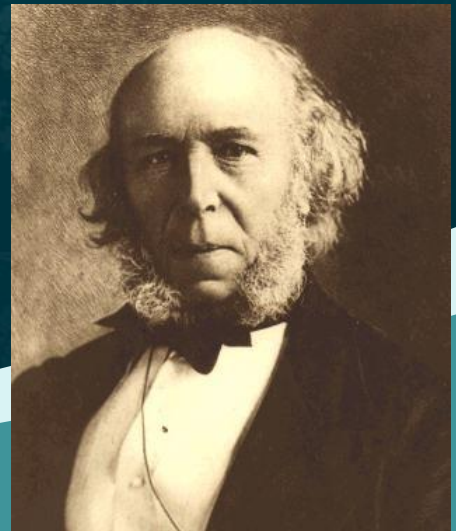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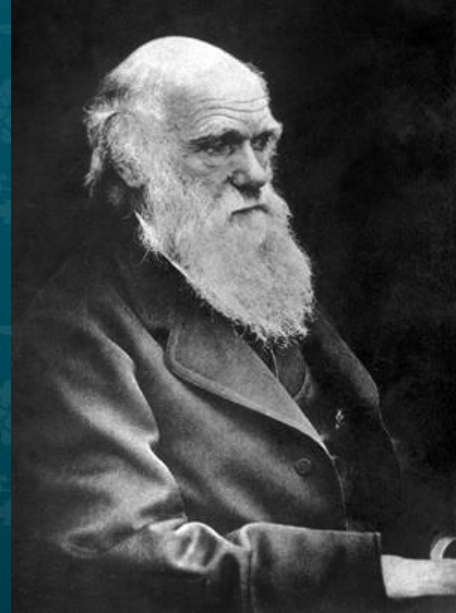
# 근대적 인종주의

- ◆ 17,18세기 - 인간은 하나의 종이 아니라는 다인종설을 학자들이 믿음
- ◆ 흑인 -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인 햄의 자손으로 간주함
- ◆ 린네 - 18세기 중반에 동식물을 종으로 나누는 분류법 제안
- ◆ 18세기 후반의 독일인 블루멘바흐의 퇴화이론
  - ◆ 원래 하나의 인간에서 나왔으나, 환경적 요인으로 퇴화되었다고 주장함
  - ◆ 다섯 개 인종으로 나눔 - 코카서스, 몽골, 에티오피아, 아메리카, 말레이
- ◆ 18세기 계몽사상가들도 같은 생각
  - ◆ 비유럽인을 인정하면, 노예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
  - ◆ 로크, 디드로, 달랑베르, 흄, 칸트, 헤겔
- ◆ 19세기 - 해부학, 생리학에서 인종간의 차이를 찾고자 노력함
  - ◆ 영국 에딘버러의 녹스는 인종간의 해부학적 차이를 제시함
- ◆ 언어학 분야의 고비노는 인간을 햄어족, 셈어족, 인도-유럽 어족으로 분류함 - 그 중 가장 순수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인도-유럽 어족 중에서 독일인들(아리안) → 19세기 유럽 인종주의자들에게 영향
- ◆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가진 미국
  - ◆ 노예제가 비합리적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열등한 다른 종이 있다고 간주함
  - ◆ 심지어 헌법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 마저도 노예제가 미국인들의 도덕적 성격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건 인정해도, 노예제 폐지에 관심을 안보임
  - ◆ 오히려 흑인들은 더위에 강하므로, 육체노동에 적합하다고 간주함
- ◆ 모턴 - 두개골의 크기와 도덕적 지적 능력을 결부시킴
  - ◆ 고대 이집트의 지배계급이 아리안이라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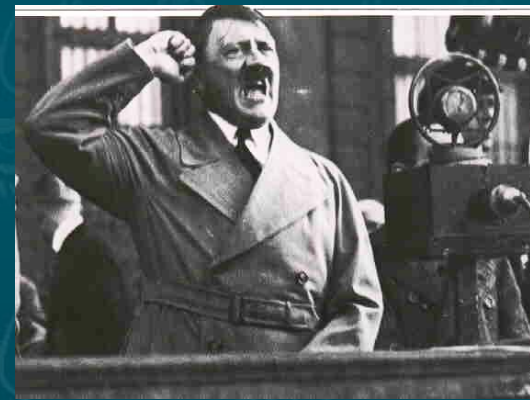


# 진화론

- ◆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 주장 - 갈라파고스 섬 탐사
- ◆ 자연도태를 통해 종이 변해간다고 설명함 - 생존에 이로운 종은 살아남음
- ◆ 적자생존이 장기간 지속되면 유전형질이 변화함 - 진화 현상
- ◆ 진화론을 통해 다인종설 및 단일인종설의 퇴화이론 사라짐
- ◆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적 다윈주의 -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함
  - ◆ 유전적으로 우월한 유럽인이 열등한 비유럽인을 지배하는 게 합리화됨
  - ◆ 미국에선 자본주의의 요구에 들어맞아 크게 환영받음



# 유대인 학살



- ◆ 19세기말, 20세기초 체임벌린
  - ◆ 바그너의 사위
  - ◆ 아리안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최우선
- ◆ 19세기 중반 - 유대인들의 유럽 사회 편입
- ◆ 1890년대까지 반유대주의 발전, 1920, 1930년 대대적 확산
- ◆ 히틀러
  - ◆ 세계사는 인종들간의 적자생존
  - ◆ 유대인들 때문에 아리안들이 위기에 처해있음
  - ◆ 국제적 금융 자본주의와 국제적 사회주의가 유럽을 뒤엎으려는 유대인들의 책략
  - ◆ 소련 침공 및 동유럽 유대인 학살
  - ◆ 폴란드 침공과 2차 대전 발발이 방아쇠
- ◆ 사람의 신체를 원료로 여러 물품까지 만듦

# 독일의 태도

- ◆ 80년대 이전까지는 반성하는 태도
- ◆ 독일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과거를 정당화하려 함
  - ◆ 역사가 논쟁
    - ◆ 영국의 데이빗 어빙 -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 ◆ 진지한 재야 역사가였던 그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에른스트 쾨넬에 의해 다음 주장에 설득됨
      - ◆ 아우슈비츠에 가스실이 없었다
      - ◆ 4년간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보다 하룻밤 새 드레스덴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 ◆ 미국의 데보라 립슈타트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로 규정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영국법에 따라 피고가 진실임을 입증해야 함
    - ◆ 캠브리지 대학의 독일사 교수 리처드 에반즈가 두 명의 박사 과정을 고용해 어빙의 책을 낱낱이 검토하여 700 페이지의 보고서를 냄
    - ◆ 어빙이 패소하고 150만 파운드의 보상금 지불
  - ◆ 2007년 유럽 의회는 인종 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 범죄를 공공연하게 용서 또는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결의 채택
    - ◆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어빙이 홀로코스트 부정혐의로 체포됨
    - ◆ 립슈타드 등은 역사 진실은 법정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논쟁으로 밝혀져야 한다며, 어빙의 체포에 반대
    - ◆ 미국, 영국 - 역사 논쟁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면 안된다는 입장
    -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 유럽 의회 결의안 지지
  - ◆ 크메르 루즈의 킬링 필드같은 20세기의 수많은 학살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림
  - ◆ 어떤 우익 역사가는 홀로코스트는 아시아적 야만으로 규정 - 유럽에서 일어날만한 일이 아니고, 야만스런 아시아에서나 일어날 일



# 인종주의는 서양문명의 본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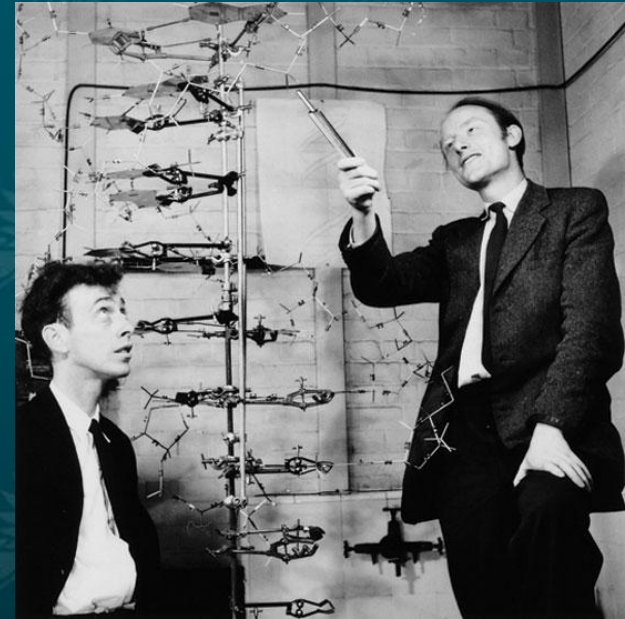
- ◆ 미국을 중심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난이 강함
  - 홀로코스트 산업
    - ◆ 이스라엘을 역사적 피해자로 규정하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관점도 있음
- ◆ 참고: 프랑스의 알제리 학살, 독일의 나미비아 학살, 벨기에의 콩고 학살
- ◆ 아리스토텔레스와 고대 그리스인들
- ◆ 중세 기독교
- ◆ 아메리카 인디언을 대량 학살하고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한 미국인들

# 최근의 논쟁적인 연구 중 하나

- ◆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의 J. Philippe Rushton 교수
  - ◆ RACE, EVOLUTION, and BEHAVIOR: A Life History Perspective (1995)
    - ◆ 인종, 진화, 그리고 행동: 인생 역사적 관점
- ◆ 두개골 용적 - 동양인 > 백인 > 흑인
- ◆ 범 죄율 - 흑인 > 백인 > 동양인
- ◆ AIDS 발병율 - 흑인 > 백인 > 동양인
- ◆ IQ - 동양인 > 백인 > 흑인
- ◆ 뇌 크기 - 동양인 > 백인 > 흑인
- ◆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종별 IQ 차이 - 동양인 > 백인 > 흑백 혼혈 > 흑인
- ◆ 비슷한 연구로 Lynn & Vanhanen

# 제임스 왓슨

- ◆ 1953년 프랜시스 크릭과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 ◆ 2007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
  - ◆ 흑인들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 정책은 잘못됐다
  - ◆ 인종간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유전자가 10년내 발견될 수 있을 것
  - ◆ 아프리카의 향후 전망은 원천적으로 음울할 수 밖에 없다
  - ◆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으나 흑인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 ◆ 지리적으로 격리돼 진화해온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동일하게 진화했을 것이라고 여길 확실한 근거가 없다
  - ◆ 동등한 이성의 능력을 보편적 인간성의 유산으로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





# 참고: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한국인

- ◆ 장하준의 나쁜 사라마이인들
  - ◆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말도 하며, 일본 사람들도 최고로 성실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유럽에서 일본이나 한국을 보는 관점을 그렇지 않았다. 게으른 민족이므로 경제발전은 없다라고 했다.
- ◆ Ernst Oppert, "조선기행 Reisen nach Korea"
  - ◆ 관리들은 짧은 재임기 동안 道, 郡 등의 안병에 대하여 거의 무관심한 반면 그들은 억지로라도 세금을 쥐어짜기에만 열중한다.
- ◆ 미국의 사회 소설가 잭 런던의 "조선 사람 엿보기"
  - ◆ 더 씩씩한 인종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기개가 없고 여성스럽다. 예전에는 용맹을 떨쳤지만 수세기에 걸친 집권층의 부패로 인하여 점차로 용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 ◆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 ◆ 관아 안에는 한국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우글거렸다. ....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민중의 피를 빠는 흡혈귀다.
  - ◆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 같은 한국인인데도 정부의 간섭을 떠나 자치적으로 마을을 운영해 가는 그곳 '이주민'들은 달랐다. (러시아의 자치구 프리모르스키에 이주한 조선 사람들을 칭함)
- ◆ 한국기업 해외서도 뇌물 바치기 '못된 짓' (한겨레 신문 2000년 3월 22일)

# 책 : 포스트모더니즘과 유태인 대학살의 부인

- ◆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태도는 역사를 주관적인 서술로 보는 것 - 역사 기술과 소설 쓰기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입장
- ◆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극히 터부시되는 바에 대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결론을 합리화시킴
- ◆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칭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자신들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입장을 편리하게 바꾸는 문제가 생김
- ◆ 결국 위의 유태인 대학살을 어떤 것으로든 바꿀 수 있음 - 이순신과 원균, 송시열, 왕건/궁예, 김유신/계백 장군/의자왕, 6.25 (남침,북침), 광주 (사태/민주화운동), 박정희, 전두환
- ◆ 참고: 사실주의 역사관과 해석주의 역사관
- ◆ 책이 주장하는 바는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이 컴퓨터 백신처럼 잘못된 역사적 주장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음
- ◆ 이 책이 훌륭한 주장인지에 대한 결론은 독자나 학생 개개인의 몫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진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어서 지양해야 할 역사 기술 방식인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일관하는 책으로 보임

# 리센코주의

- ◆ 1930년대 리센코주의에 입각하여 소련의 농업 정책을 펴나감
- ◆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 유전된다고 주장함
- ◆ 리센코는 맨발의 과학자로 영웅시됨
- ◆ 그의 조작된 연구 성과는 대대적으로 선전됨
- ◆ 자신의 학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숙청함 - 위대한 생물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가 비밀경찰에게 죽음
- ◆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됨
- ◆ 스탈린의 죽음 이후, 큰 비난에 직면함
- ◆ 그는 소비에트 연방 생물학, 특히 유전학의 부끄러운 후진성에 대한 책임과 사이비 과학을 유포시킨 것, 모험주의, 학문의 격하, 그리고 수많은 진짜 과학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고하고 체포하고 심지어 죽인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노벨평화상 수상자)
- ◆ 1965년에 실각하고 리센코주의는 끝났으나, 중국에서 수년간 더 영향을 미침



# 참고 : 피터 싱어

- ◆ 호주 멜버른 출신의 철학자 - 프린스턴 대학 교수
- ◆ 실용 윤리 전문가, 선호공리주의와 무신론 관점에서 윤리적 문제에 접근함
- ◆ 동물해방론자 - 저서 "동물해방"은 국내에서는 개고기 반대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논리
- ◆ 낙태, 안락사, 유아살해에 대한 관점
  - ◆ 피터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인생의 권리는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결정됨. 즉, 고통과 즐거움을 가질 능력이 있어야 인간적 권리를 가짐
  - ◆ 8주까지의 태아는 고통과 즐거움을 가질 능력이 없으므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낙태 가능
  - ◆ 신생아는 이성, 주관, 자의식이 없으므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성인을 죽이는 것과 동등하지 않다
  - ◆ 공리적 관점에서, 기쁨과 고통을 즐길 수 없는 경우나, 고통만 있는 삶에 대한 안락사 찬성 →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함 → 안락사시키지 못함 → 비난에 처함 → 나중에 매우 어려운 결정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누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함. 만일 본인만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를 안락사시켰을 것이라 함

# 황우석 사태

- ◆ 난자 출처 의혹 - 두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되고, 미즈메디 측에서 일정 금액 지급
- ◆ PD 수첩은 세계적인 과학자의 잘못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전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함 → 광고주에게 압력이 행사되어 PD 수첩은 광고 없이 방송이 나감 → 수많은 사람들이 난자 기증에 서명
- ◆ 논문 자체의 조작 가능성 - PD 수첩 측에서 배아줄기세포의 DNA 지문 불일치 지적함 → 황우석은 PD 수첩 측에서 세포를 가지고 나갈 때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함
- ◆ BRIC, 싸이엔지,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논문 사진에 대한 의혹 제기됨 - 황우석 입원
- ◆ 노성일 미즈메디 사장이 2005년 논문에 줄기세포는 없었다고 주장함
- ◆ 서울대 조사위원회 - 2005년 논문이 고의로 조작되었다고 중간 보고 결과를 발표함. 2004년 논문 역시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원천기술 역시 독창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
- ◆ 노정혜 위원장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폭행 당함

# 황우석 이후

- ◆ 논문 표절 및 논문 조작 여전히 팽배함
- ◆ 실적 유혹 때문에 연구 부정행위 발생 - 논문의 질보다는 개수를 따지는 자세 (대부분의 경우, 평가하는 쪽에서 논문을 읽지도 않음)
- ◆ 대학과 정부의 자세
- ◆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 문제
  -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 생명연구자유리헌장
  - ◆ 서울대 - 교수 윤리 헌장
  -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법 개정
- ◆ 난자 제공자들
  - ◆ 불치병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해 기증
  - ◆ 정신적 혼란
  - ◆ 후유증 - 배에 물이 참, 질염같은 여성병



# 황우석은 왜 옹호되었는가?

- ◆ 한 명의 천재나 스타를 통해, 국가나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는 사고 방식에 극도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가세함
- ◆ 실제로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기술에 대한 부풀린 가치 평가 (몇 조 단위)
- ◆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기술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믿음
- ◆ 수많은 사람들(교수, 연구원 포함)의 인지 부조화 발생

# 참고 : G20의 경제효과

- ◆ 2667억원 - 2010년 10월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 7조원 - 2009년 12월 31일
- ◆ 18조원 - 2010년 10월 28일, MTN 신문
- ◆ 21조원 - 2010년 10월 9일, 삼성경제연구소
- ◆ 24조5천억원 - 2010년 11월 2일, 삼성경제연구소
- ◆ 31조원 - 2010년 10월 18일, 국제무역연구원
- ◆ 31조원 이상 - 2010년 10월 27일, 한국무역협회 (직접 효과 2667억원에 간접 효과 포함)
- ◆ 400조8천억원 - 2010년 10월 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 450조원 이상 - 2010년 11월 7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결과
  
- ◆ 이른바, 미래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산인지 알 수 있음
- ◆ 재미있는 댓글 중 하나 - "이 속도로 나가면 세계 정복도 가능하다"

# 강철구 교수의 민족주의에 대한 글 정리

- ◆ 근대주의적 해석은 유럽 중심적
- ◆ 민족의 본질은 언어, 종족성, 역사, 관습, 종교 같은 객관적 요소
- ◆ 민족주의 이론
  - ◆ 영속주의, 원초주의(개미가 모이듯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결속), 근대주의
- ◆ 근대주의
  - ◆ 겔너(산업화가 민족주의를 낳았다), 앤더슨(민족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8세기말에 시작되었다), 홉스봄(민족주의는 지구화를 통해 사라질 것이다)
- ◆ 근대적인 민족의 정의 (필립 고스키)
  - ◆ 민족주권(모든 구성원의 평등), 민족자결(정치적 자율성), 정치적 운동(민족감정이 정치적 운동까지 가야 함. 전근대에는 민족의식은 왕권이나 종교에 귀속되어 있었음) - 강철구에 의하면 너무 협소한 정의
- ◆ 강철구의 주장
  - ◆ 서유럽의 민족의 기원은 10세기 전부터이며, 18세기까지의 근대 초의 시기에 민족과 민족주의가 출현했음
  - ◆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7년 전쟁을 통해 완성됨
  - ◆ 민족이란 단어는 1790년부터 쓰임
- ◆ 변방의 주장이며, 그 내용을 보면 가끔 서양의 주장에 무조건 경도되지 말고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의식이 있음
  - ◆ 우리나라 학자들은 너무 서양의 주장에 경도되는 데, 비판적일 필요가 있다는 어조



# 하은주와 당에서 - 누가 애국자였나?

## ◆ 당에서

- ◆ 중국에서 탁구 국가대표가 되었으나 선수층이 두터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음
- ◆ 한국행 이후 대한항공에 소속되어 이후 한국인으로 귀화
- ◆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
- ◆ 과연 당에서는 한국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을까?

## ◆ 하은주

- ◆ 고등학교시절 잘못된 한국의 학원스포츠시스템에 혹사당하여 무릎연골 부상
- ◆ 한국의 학원스포츠는 재활이라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재활하려는 하은주에게 농구 포기 각서를 요구
- ◆ 농구협회에 하은주를 선수 제명
- ◆ 일본에서 부상치료와 재활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제의
- ◆ 또한 선수로 재활이 안되더라도 일체를 지원하겠다는 제의
- ◆ 수술후 재활에 성공, 일본 무대에서 각광받는 선수가 됨
- ◆ 일본귀화를 결심
- ◆ 한국에서 매국노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손가락질당함
- ◆ 현재 한국인으로 다시 국적 회복

# 민족주의의 일부는 실은 애국주의

- ◆ 민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民族 - 최남선이 만듦
- ◆ 민족은 영어로는 적절한 단어 없고, 주로 nation(국가)으로 번역됨
- ◆ 핏줄이나 혈통의 순수성?
  - ◆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교류
  - ◆ 계속되는 인구 유입
  - ◆ 무엇이 정확한 한국인의 혈통인지 저명한 학술지에 실려 세계적인 과학자들에게 상식으로 인정된 바 없음
  - ◆ 그럼에도, 한국인의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계속되고 있음
    - ◆ 당에서나 할리는 한민족이 아닌가?
    - ◆ 국제결혼이 증가하는데 (전체 결혼의 10%) 앞으로 한민족은 없어지는 건가?
- ◆ 국가에 속하는 것은 결국 계약 - 모국은 바뀌어도 모교는 못 바꾼다
- ◆ 애국심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와해될까 두려워하는 공포에서 나옴
- ◆ 그러나, 애국심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애정에서 나와야 함
- ◆ 진정한 애국자라면 자신이 속한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남고 싶어하는 곳이 되도록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지, 떠나는 사람을 욕죄고 욕박지르거나,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주장을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뒷받침하여 강요하는 건, 실은 조폭의 논리나 다름 없음

# 생각해 볼 문제들

- ◆ 우리가 인간이라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수정 시? 태아일 때? (본성 대 양육)
- ◆ 역사를 통해 인간이나 사회는 발전하는가 아니면 반복하는가?
- ◆ 환경적 불평등과 유전적 불평등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환경적 불평등은 고쳐져야 하고, 유전적 불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가?
- ◆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만명이 넘는 10년 넘은 장기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남은 삶이 고통 뿐임이 분명하고, 본인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안락사는 정당화되는가?
- ◆ 스스로 생각하기에 국가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 가능한가?
- ◆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입장이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고 보며, 역사 서술도 결국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더더욱 나가서 역사 서술은 소설 쓰기와 같은 장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해석이 옳은가?
- ◆ 민족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겔너가 옳은가? 강철구가 옳은가?